

◆ 04-6평 48~51번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찍이 그라이스(Grice)는 ㉠‘협력 원리’라는 말로 대화에 내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대화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의 협력 원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인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 혹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質)의 격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量)의 격률>, ‘관련성을 지니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손님을 초대하여 잘 차린 음식상 앞에서)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말화는 한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협력 원리를 준수한 말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차린 것이 많다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 전달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청자에 대한 관계 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협력 원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공손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나)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임을 자처한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언어 또한 그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러한 언어 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의 관습적인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등의 안부를 묻는 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어른께 문안을 드리거나, 집 밖에서 친지를 만났을 때 피차에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이와 같은 의문 형식의 인사를 한다. 이러한 발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처럼 애초부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일상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다만 친교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는 대체로 피차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문제를 화제로 선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개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교섭에서,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운 화제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본론에 접근하면, 단도직입으로 난제를 꺼내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48. (가), (나)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 ② 대화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 ③ 합리적인 사고는 곧 합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다.
- ④ 말은 글과 달리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 ⑤ 언어의 의미는 언어 형식보다 발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49. (가)와 (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대화 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한다. 강의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②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면 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 ③ 어려운 문제일수록 급하게 말을 꺼내지 말라. 단계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 ④ 비유적이고 모호한 말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말을 사용하라.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상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쉽게 실득할 수 없다.

50. ㉠‘협력 원리’ : ㉡‘공손 원리’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자전 : 공전
- ② 협력자 : 구원자
- ③ 교차로 : 신호등
- ④ 일반법 : 특별법
- ⑤ 하수도 : 상수도

51. <보기>에서 ㉔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㉑ “오늘은 꼭 돈을 받고 말겠어.”

주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게로 들어섰다.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

㉒ “안에 누구 없어요?”

주인은 가게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여자를 찾았다.

“아, 오셨군요. ㉓ 식사는 하셨어요?”

방 안에 있던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을 건넸다.

㉔ “사글세가 여러 달 밀려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㉕ 이번에도 형편이 안 되네요. 우선 밀린 거 한 달치만 받아 가시면 안 될까요?”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딸의 생일 선물을 깜빡 ㉠ 잊은 아빠가 ㉡ “내일 우리 집보다 더 큰 곰 인형 사 올게.”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아닌가?
- (나)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화행 이론은 요청, 명령, 질문, 약속, 충고 등의 발화가 상황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성 조건을 제공한다. 적절성 조건은 상황에 대한 배경적 정보와 관련되는 예비 조건, 그 행위에 대한 진실된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진지성 조건, 그 행위가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만드는 발화 효과와 관련되는 기본 조건으로 나뉜다. 어떤 발화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
- (다) 적절성 조건을 요청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 청자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음을 화자가 믿는 것이 예비 조건, 청자가 그 행위를 하기를 화자가 원하는 것이 진지성 조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세요.”라는 발화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화이지만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비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좀 미워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하지만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진지성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저 달 좀 따다 주세요.”라는 요청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정말로 달을 따러 가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 조건을 어긴 요청이 된다.
- (라) 둘 이상의 조건을 어긴 발화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저 달 좀 따다 주세요.”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달을 따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고 달을 따다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으며 또 달을 따러 가게 할 생각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이 발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히 사용되고 또 용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는 이 발화가 세 조건을 전부 어기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모종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청자 또한 그런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발화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유효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용인된다.
- (마) 화행 이론은 적절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이것만으로 발화와 상황의 상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발화 상황과 연관 지어 언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언어 이론의 공통적 한계이기도 하다.

34.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적절성 조건을 어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잘못이다.
- ② 예비 조건은 다른 적절성 조건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③ 적절성 조건이 가장 잘 적용되는 발화 행위는 요청이다.
- ④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적절성 조건을 어긴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35.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친숙한 예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 ② (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여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 ③ (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다른 사례를 들어 앞 단락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마):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6. <보기 1>은 ㉠의 예비 조건이다. ㉠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할 때,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보기 1>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다.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다.

<보기 2>

- 딸(6세): (셀쭈커리며) 세상에 그렇게 큰 곰 인형이 어딤어?
- 아들(4세): (불멘소리로) 아빠, 나도 사 줘.
- 엄마: (딸의 손을 잡으며) 그럼 아빠한테 예쁜 구두 사 달라고 할까?
- 할머니: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구두가 좋겠다.
- 할아버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선물을 사 주면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

- ① 딸
- ② 아들
- ③ 엄마
- ④ 할머니
- ⑤ 할아버지

37.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수돗물 잠그고 나오는 것을 잊어서 불안해요.
- ② 그는 일에 푹 빠져 자기 나이를 잊고 지낸다.
- ③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사람의 이름도 잊었어요.
- ④ 그는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 ⑤ 지난날의 감정은 모두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적인 대화는 언어 지식에서 얻은 문장의 의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표현과 이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화용상의 암시는 이들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 영이는 일등이 아니다.

어떤 대화 상황에서는 (1)의 의미가 '철수가 일등을 하였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1)에서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철수와 영이를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일·이등을 다투어서 영이나 철수가 일등 아니면 이등을 할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런 의미가 도출된다. 이렇게 화자나 청자 또는 상황에 의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을 화용상의 암시라고 한다. 이 화용상의 암시는 (1)과 같은 표면적인 의미와, (1)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다. 즉, 언어 지식에 의하여 발화에서 영이는 일등이 아니라는 명제를 이끌어 내고,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 밖의 지식과, 화자와 청자가 지니고 있는 추리 규칙에 의하여 철수가 일등이라는 명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가 공동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A : 철수가 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B : 철수는 어려서 개미를 가지고 놀곤 하였지.

(2)의 경우, B가 A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지식이 없다면, 이 B의 발화를 들은 A는 어떤 전제를 추리하게 된다. 철수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영이를 좋아하는 것이 이상한 취미라면 영이는 어딘가 개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선행 발화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전제와 함께 화자가 한 말에서 청자가 끌어내는 화용상의 암시가 대화상의 암시가 되는 것이다. 곧 언뜻 듣기에는 관련이 없는 발화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갖는 화용상의 암시를 ㉠ 대화상의 암시라고 한다.

언어 지식에서 얻은 문장의 의미 해석 외에 한 발화는 다음과 같은 화용상의 암시를 갖는다. 선행 발화문과 관련시키는 데 필요한 공동지식을 바탕으로 한 화용상의 암시,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두 말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전제, 이 전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상의 암시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화용상의 암시는 일반적인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을 갈라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19. 위 글로 보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① 선행 발화에서 끌어낸 추리 규칙으로 가능하다.
- ② 언어 지식에 의한 발화의 의미 해석으로 가능하다.
- ③ 발화들을 결합하는 전제에서 의미 추론으로 가능하다.
- ④ 대화 참가자들의 대화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 ⑤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

20. [A]로 보아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언어 지식	ㄴ. 추리 규칙	ㄷ. 공동의 지식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 어제 열린 체육대회에서 너희 반 우승했니? .....	㉠
을: 둘 더하기 둘이면 넷이지. ....	㉡
갑: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 .....	㉢
을: 달리기 경기에서 경희까지 발목을 빼었어. ....	㉣
갑: 경희가 다쳐서 윤호가 마음이 아프겠네. ....	㉤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분
㉠: 어제 체육대회가 열렸다.	문장 의미 해석 ... ①
㉡: '을'의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화상의 암시 ... ②
㉢: 지난번에는 다친 사람이 있었다.	대화상의 암시 ... ③
㉣: 경희가 달리기 종목에 참가했다.	문장 의미 해석 ... ④
㉤: 윤호가 경희를 좋아한다.	화용상의 암시 ... ⑤

22. <보기>는 [결합하는]을 사전에서 찾아 본 내용이다. ㉠과 같은 제약이 나타나 있는 것은?

< 보 기 >
<b>결합하다</b> : [...과]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로 온다.

- ① 문장들을 서로 견주어 차이를 알아보았다.
- ② 누나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 ③ 깜빡 잊고 친구들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 ④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다릅니다.

## ◆ 08년 10월 고3 48~50번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언어에 자신의 의도를 담고, 듣는 사람은 그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된다. 이런 행위가 잘 되었을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주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이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을 때에 일어난다.

먼저 낱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상대적 개념’ 운운하며 대답을 시작한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라는 낱말에 대해 ‘여자’라는 낱말이 존재한다는 식의 대응 관계를 의미하는 ‘상대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두 개념의 차이를 혼동하여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축구장에서 앉을 자리를 찾는 사람은 으레 “여기 자리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때 질문을 듣는 사람은 심한 당혹감에 사로잡힌다. 그것이 주인 없는 빈 좌석일 때, “자리 있다.”라고 말해야 할지 “자리 없다.”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질문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묻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대답할 수 있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간혹 “○○에게 상의해 봐.”라는 말을 하곤 한다. 우리 국어에서 ‘상의하다’라는 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말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기 때문

[A]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방향의 의사 전달만을 의미하는 ‘-에게’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와 상의해 봐.”로 수정해야 한다. 만약에 문법적인 오류를 범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본래의 의도를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언어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에 낱말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히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상대방이 문법적으로 실수를 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4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강사가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운동의 주체가 자기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대립되는 상황으로 변하여 달라지는 일’을 ‘자기 소외’라고 한다고 말하자, 듣는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소외’되어 따돌림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린다.

- ① 화자가 개념의 정의를 잘못 전달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군.
- ② 청자가 화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군.
- ③ 청자가 화자의 말을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군.
- ④ 청자가 낱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군.
- ⑤ 화자가 청자의 수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군.

49.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말하는 이의 엉뚱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 ② 말하는 이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해서
- ③ 말하는 이의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 ④ 말하는 이가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해서
- ⑤ 말하는 이가 자신의 입장만을 과장하여 질문을 해서

50. <보기>는 [A]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말은 서술 부분의 의미에 따라서 조사의 쓰임이 제한된다. ‘상의하다’는 ㉡에 쓰여야 하는데, ㉢에 쓰였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인 것이다.

- ㉠. ○○은(는) ○○와(과) (      ㉡      ).  
 ㉢. ○○은(는) ○○에게 (      ㉢      ).

- |   |      |      |
|---|------|------|
|   | ㉡    | ㉢    |
| ① | 대담하다 | 질문하다 |
| ② | 충고하다 | 협의하다 |
| ③ | 질책하다 | 직언하다 |
| ④ | 상소하다 | 대화하다 |
| ⑤ | 응답하다 | 언쟁하다 |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테는 젊은 시절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면서 “나의 조국을 알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노라.” 하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어를 통해서 한국어에 있는 문법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때로는 한국어의 고유성에 대한 재확인(再確認)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 “철수가 축구를 하였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문장으로는 화자가 ‘철수가 축구를 한 것’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들었는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토착어인 투유카 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적 여부가 동사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diiga apéw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보았다.)

diiga apét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diiga apé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diiga apéyig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diiga apéhiyi (그가 축구를 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시각적, ti=비시각적, yi=명백함, yigi=전해 들음, hiyi=짐작함}

(다) 위 예문들의 공통 의미는 ‘그가 축구를 하였다’이다. 그런데 투유카 어의 문장으로 이 의미만을 표현할 수는 없다. 투유카 어는 증거법의 형태들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증거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법 형태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단어나 문장 등 다른 차원의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어로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투유카 어의 그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라)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한가? 한국어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 ‘높임법’이다.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에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 한국어 화자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당신은 청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듣는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높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높임법을 보편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외국어는 자국어(母語)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

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3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문명국일수록 언어 체계도 우수하다.
- ② 언어는 인종이 세상을 대하는 사고 방식과 무관하다.
- ③ 외국어를 통해서 자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 ④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하여 언어 체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⑤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3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인용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예시를 통하여 설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다): 대조를 통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유추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사건에 대한 화자의 목적 여부를 드러낸다.
- ② ㉠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문법 범주이다.
- ③ ㉡을 통해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과 ㉡은 모두 문장에 형태적으로 표시된다.
- ⑤ ㉠보다 ㉡이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

34. 위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 ㄱ. 언어는 본능의 일종이지만, 문자 언어는 본능이 아니다.  
- 스티븐 핑커 -
- ㄴ. 인간은 유한한 문법 장치로 무한한 문장들을 생성해 낼 수 있다.  
- 노암 촘스키 -
- ㄷ. 어떠한 언어도 혼자만으로는 인간이 이루어 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다.  
- 에즈라 파운드 -
- ㄹ. 세계는 여러 조각이 모인 모자이크이다. 언어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잃는 것이다.  
- 아린 달리나 로드리게스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봄	불	하나	
A 언어	tom	tel	tark	.....
B 언어	som	sel	sark	.....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ātē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3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④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⑤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34.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

35.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봄)	pul-(불다)	pil-(빌다)
만주어	fom(계절)	fulgije(불다)	firu-(빌다)
몽고어	hon(년)	hülie-(불다)	hirtier-(빌다)

- ①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겠군.
- ②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 12-9평 28~30번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른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 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는 아니다.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 L2 학습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한다. 많은 경우 오류는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류 중에는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유아의 언어 체계도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에서는 중간 언어와 같다. 하지만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다. 또한 유아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하지만,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L2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간 언어가 형성될 수 있다.
- ② 중간 언어는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동일한 랑그를 가지고 있다.
- ④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 ⑤ 유아는 L2 학습자와 달리, 배우는 언어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② L2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L2 학습 과정에서 자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④ L2의 학습 기간이 같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⑤ L1과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0. <보기>의 ㉣을 ㉠, ㉢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 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함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다. ㉣ 이 언어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언어였다. 초기에는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였으나, 이들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단순했다.

- ① ㉣과 ㉠은 혼종된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② ㉣은 정교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과 같다.
- ③ ㉣과 ㉢은 단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④ ㉣은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는 점에서 ㉢과 다르다.
- ⑤ ㉣은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와 같다.



## ◆ 05 MDEET 언어추론 44~46번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 세기 언어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중심이었다. 사피어, 비트겐슈타인 등의 언어 연구를 통해, 인간의 언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서술적’ 매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세계를 ‘구성’해 내는 ‘조형적’ 매체라는 깨달음이 부각되었다. 각각의 문화는 그것들이 내장하고 있는 언어 체계로 정의되며,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세계상을 갖게 된다는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그러한 언어관의 변모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언어 상대주의의 명제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나) 20세기 초 인류학자들은 모든 원시 종족들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추상적 개념과 보이지 않는 실체, 복잡한 추리의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완전한’ 언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모든 인간 사회에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언어가 인간의 선천적 능력과 관련 있다고 추측할 단서가 된다. 그러나 보편성 자체가 선천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여행자도 언어 없는 부족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즘의 인류학자들은 TV나 코카콜라가 없는 인간 집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TV나 코카콜라처럼 인간의 언어도 보편적 용도 내지는 유용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 그러므로 언어가 선천적 능력의 일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거가 필요하다. 가장 인상적인 자료는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성인들과 달리 대략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어느 언어권에 놓이더라도 어려움 없이 그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그 언어를 단순히 반복하는 능력 이상의 것을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대단히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언어 자료로부터 훨씬 복잡하고 문법적으로 정연한 언어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인상적인 예가 ‘크레올화(creolization)’라는 현상이다.

(라) 크레올화란, 다른 언어로부터 일관성 없이 차용한 단어들과 극도로 단순한 문법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임시변통 언어인 피진(pidgin)이, 문법적으로 견고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크레올(creole)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본래 피진은 식민지 농장의 노예나 무역업자, 여행자 같이 공통의 언어 없이도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어제 나 개 물다”와 같은 표현이 피진의 어법인데, 여기서는 문법 대신 단어들 간의 연상이나 대화의 맥락 등이 의미를 해석하는 주된 자원이 된다. 흥미로운 것은 성인들은 피진을 크레올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크레올은 피진의 언어 환경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린이들이 어떤 훈련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크레올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정신 내부에 언어적 알고리즘 같은 것이 미리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마) 만약 이러한 선천성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언어의 상대성에 대한 강조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각의 역사적.문화적 조건에 의해 언어가 서로 다른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가진다 해도, 그것들의 심층에서는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언어의

선천성에 대한 깨달음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생물학적 상수항 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라는 과제를 남겨 준다.

44. (가)~(마)의 중심 화제와 내용 요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가):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의문 - 언어의 조형성과 연관된 언어 상대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② (나): 언어의 보편성과 선천성 - 모든 사회에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런 보편성이 곧 선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다): 언어의 선천성 - 어린이들이 어떤 언어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크레올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라): 언어의 선천성의 증거 - 피진에 노출된 어린이가 크레올을 발달시켜 가는 것은 선천성의 증거가 된다.
- ⑤ (마):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 -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바탕에 선천적 언어 기제가 깔려 있다는 각성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45. 피진과 크레올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진이 없어도 크레올은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크레올을 이해하는 어린이는 피진도 이해할 수 있다.
- ③ 피진을 쓴다고 해서 모국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크레올에 비해 피진의 의사소통은 상황에 많이 의존한다.
- ⑤ 크레올은 인간의 선천적 언어 습득 능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46. ㉠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물로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언어 정보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 ② 언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 보면, 친숙하고 편리한 것처럼 보였던 일상 언어의 이면에 매우 복잡한 문법 체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언어는 순수한 본능이 아니다. 학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과도 다르다. 어린이에게는 술을 빚고 빵을 만들려는 본능적 경향이 없는 반면, 그들의 지렁이에서 볼 수 있듯이 말하려는 본능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④ 우리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분간하여 언어로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자체가 미리 그런 식으로 분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어에 의해 미리 설계된 선을 따라 자연을 분간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 ⑤ 북극권 언어에 눈의 형태나 색깔을 뜻하는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해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포착된 사물의 다양한 모습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며, 이는 종마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말[馬]에 관한 단어를 풍부하게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57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속된다. 그러므로 ㉠ 성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셈이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리하여 인류 역사에 드리워진 비극에 대해 경고한다. 한 언어학자는 현존하는 북미 인디언 언어의 약 80%인 150개 정도가 빈사 상태에 있다고 추정한다.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기존 언어의 90%인 40개 언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23%인 160개 언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인 225개 언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 언어의 50%인 대략 3,000개의 언어들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한다.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약 600개의 언어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 세계 언어 수의 90%에 달하는 그 밖의 언어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소멸할지도 모른다.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물론 우리는 소멸을 강요하는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들을 중단시키는 한편, 토착어로 된 교육 자료나 문학 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언어 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라도 20세기의 히브리 어처럼 지속적으로 ㉢ 공식어로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그 언어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나 식물 종들을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는 없으며,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얹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언어 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 주는 주류 언어로 돌아설 것을 선택할 때, 그 어떤 외부 집단이 이들에게 ㉣ 토착 언어를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공동체 내에서 이질적인 언어가 사용되면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전 세계 언어의 50% 이상이 빈사 상태에 있다면 이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왜 우리는 ㉤ 위협에 처한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 준다. 언어는 인간의 역사와 지리를 담고 있으므로 한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역사적 문서를 소장한 도서관 하나가 통째로 불타 없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의 수와 연관이 있다.
-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③ 언어의 소멸에는 전자 매체도 영향을 미친다.
- ④ 언어의 소멸을 막으려는 노력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 ⑤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

58.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 ③ 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다.
- ④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9. 위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보기>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보 기>—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 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íy*와 *níy*로 구별되고, 체로키 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① 언어가 발전해 가면서 구분 체계도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 ② 언어 간의 차이는 인류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 준다.
- ③ 문법적으로 더 세밀히 구분을 하는 언어일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 ④ 국제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언어 간의 차이를 줄여가야 한다.
- ⑤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널리 쓰이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0. ㉠~㉤ 중, 문맥상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